



# 양계업계 어려움극복, 이렇게하자

- 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착시켜야 .....지설하
- ② 어려울수록 동치서 해결하자 .....김중경
- ③ 신속성 있는 생산량 가감조절이 필요.....이계욱
- ④ 계열화 도입이 절실하다 .....최성복
- ⑤ 빠른 시일내에 안정기금제도를 마련하자..정창각
- ⑥ 물량을 자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설동섭
- ⑦ 한탕심리 버리고 단결해야 .....유길동
- ⑧ 나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전체를 망친다 ..김상희

#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착시켜야

지설하  
국립축육원장



**현** 재 당면하고 있는 양계산업의 어려움은 양계산물의 좁은 국내시장에 계절적인 소비의 기복, 타축산물에 의한 대체성 소비, 가격호조에 의한 과잉생산 등의 요인에 따라 수요의 폭은 감소하는데 비하여 수급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되어 양계산물의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가격의 진폭은 자유생산, 자유거래의 경제체제 하에서 올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77년도에 1,000수 미만인 24%, 10,000수 미만인 49.8%, 10,000수 이상이 16.2% 였으나 '87년도에는 1,000수 미만인 2.3%, 10,000수 미만이 34.4%, 10,000수 이상이 63.1%로서 전업화 과정을 거쳐 기업화 형태로 바뀌어졌다. 뿐만 아니라 사육수수는 '77년도에 30,224천수에서 '87년도에 59,324천수로 96%가 증가했다.

그러나 계산물의 소비는 타축산물의 소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편이다. 1970~1987까지 육류의 연평균 소비증가율을 보면 돼지고기 10.1%, 쇠고기 5.9%에 비해

닭고기는 5.6%로서 가장 낮다.

계산물의 가격을 보면 닭고기 가격이 '85년도에 961원/kg, '86년도에 877원/kg, '87년도에 793원/kg이고 계란가격도 '85년도에 475원/10개, '86년도에 428원, '87년도에 392원으로 계속 하락세에 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인가 제도적 장치를 구상해야만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의 양계산업은 부업, 전업시대를 거쳐 기업화시대로 비교적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산자를 중심한 협회(協會), 조합(組合)이 구심체가 되

어 정부의 협조를 받아 수급과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가지 제도를 소개할까 한다.

1. 생산자의 이해 및 업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간가격 안정기금 즉, 자조금(自助金)제도
2. 생산의 할당제(quarter) 및 가격의 규제 등을 실시하였던 호주의 에그보드-드(Egg Board)제도
3. 유통조절을 위한 판매의 일원화 제도
4. 북구제국(北歐諸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중가격제도(double price system) 즉, 할당량 이상 생산했을 경우 국내가격 보다 훨씬싼 국제시장가격(world market price)으로 구매하는 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이와같이 경제의 민주화가 이룩되는 마당에 우리의 양계산업은 생산자 단체가 주도가 되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 수급조절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어려울수록 똥쳐서 해결하자

**세** 류(歲流)의 변화에는 역행할 수 없는가 보다. 국익우선의 정책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꾀했다는 발표에 농·축산인들은 쉼

루가스를 마시고 계란 및 소똥을 던지며 수입개방 반대 시위를 했음에도 올림픽을 전후하여 미국으로부터 들어올 물량이 선적되었다고

## 김중경

협업오경농장 대표



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힘이 약해서였을까, 정말로 국익을 생각해서였을까는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산 농축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담배는 이미 판매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이 1.69%를 차지)

담배를 보더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 생산물을 소비해 달라는 호소에는 한계가 있다. 만일 양계산물 전체가 수입개방되었을 때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긴다고 자신할 농가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계인들은 이런 저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농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여 서로 불신하고 불황에 대한 책임전가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계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유통구조 개선으로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팔 때 가격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한 경영이 되도록 보장을 해 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수급사정에 따라 출하가격 결정을 생산자가 해야 함에도 이것을 10년 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회의를 해 왔지만 단 한번도 단안이 내려지거나 중지가 모아진 적은 없다고 본다.

그러다가 회의를 가져보아야 결론 없이 끝나는 것을 비난하면서 또 다른 모임체를 갖고 규모에 따라 분리되고, 이제는 업종별로 별개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서로가 불신만을 거듭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문제는 마음이다. 진정 자기 자신이 살고, 나아가 업계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한 마음으로 단합을 해야 한다. 체제가 문제되는 것보다 하나의 체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매번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거론되는 어떤 안건도 다 해결되어야 할 일이다. 서로가 너무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점에도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10년간 양계업계를 지배해 온 단점이 되고 말았다.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여론에 의한 정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왜 여론을 수렴할 하나의 기구로 단결치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양계업계 어느 부문이건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본다.

우선은 어려울수록 '닭'이라는 공동운명을 바탕으로 뭉쳐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고 여건이 좀 성숙되면 업종별로 나누어 세분화시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양계업계의 급선무는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뭉쳐야 유통구조도, 정책개선도,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양계업계의 개선은 또 다시 10년 아니 20년이 걸려도 과거처럼 발전을 위한 모임이 결론없는 대책회의로 공전될 뿐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 신축성있는 생산량 가감조절이 필요

## 이계욱

천호부화장 사장



**양**계산물의 소비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계불황은 점점 만성화되고 있어, 생산자가 마음놓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경영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년동안의 계

속적인 생산시설의 확대로 닭고기와 계란의 생산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를 훨씬 앞질러가게 되는 만성적인 과잉생산의 잠재력을 갖추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생산증가만이 이익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그리고 양산체제만이 경쟁에서 유리하리라는 그릇된 논리를 가진 양계인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생산만 해놓으면 팔리던 시절, 그리고 파는 일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생산자가 산물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물량의 수급조절에까지 참여하지 않고서는 우리 양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계산물이 소비량 증대와 더불어 양계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신축성있는 생산조절을 통한 적정생산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느때와는 달라 국제곡물시세 폭동의 영향으로 곧 국내 배합사료 가격의 큰폭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당면한 고곡물가시대와 양계산물 저가시대를 슬기롭게 대

처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다.

물론, 감산만이 능사가 아니며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한 사실이다.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도 우리 국민 1인당 계란소비량이 156개였으며 닭고기 소비량은 아직 3.3kg에 머물러 있다.

선진외국의 소비량 증가추세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도 계란 180개 그리고 닭고기는 8kg까지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빠르게 늘려가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등 내외부적 환경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판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만이라도 생산잠재력을 대폭 감소시켜 양계산물의 가격을 적정선까지는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견되는 극심한 어려움의 최소화 내지는 예방을 위해서는 산물의 수급 균형에 맞추어 생산량을 신축성있게 가감조절시켜 나가면서,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양계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성복

육계농가인정협의회장

루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필자는 육계생산자이기 때문에 육계업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당면한 몇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육계불황의 주인(主因)은 과잉생산 때문이라는 것을 생산자와 유관업자가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생산조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업계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즉, 책임부서가 없어서 능동적인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번째로, 정부가 진심으로 육계농가의 생업을 보장하고 그리고 농가부업으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게 서 있다면, 정부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의 중소가축과를 가금(家禽)과나 양계과로 확대개편해서 전도가 불투명한 양계업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정부사업의 보조기능만을 수행해 온 축협이 최근에는 변신을 위한 기구개편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축협이야말로 심기일전해서 축산인을 위한 축종별 전문조합으로의 개편을 서둘러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육계농가가 안고 있는 재무구조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육계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준다면 육계산업의 정착은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육계산업이 안정되려면 계열화의

## 계열화도입이 절실하다

**양**계업의 불황을 어떻게 극복  
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

자면 먼저 우리업계에 잠재하고  
있는 불황의 원인(遠因)과 근인을 두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양계불황이 보다 더 심화돼서 죽을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업계가 진정되지 계열화를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세한 육계농가가 재기불능으로 업계에서 사라져야 안정의 국면을 다시 맞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을 따지고 보면 '87년말경 육계불황이 장기화되었을 때 정부도, 축협도 속수무책으로 하등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핑계에 해 본 소리일뿐, 자기 자본이 다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육계농가의 재무구조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육계불황이 심화되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

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론적으로 계열화가 실현되어야 육계산업이 안정되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3천억 정도의 엄청난 돈과 초창기에 있을 수 있는 위험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산자를 포함한 병아리와 사료와 동물약품, 상인 식품제별 등 우리 업계의 모든 이익집단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이끌어 간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업계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지원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엄청난 사업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본원인은 물량의 과다공급과 이의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라는 데 있다.

해마다 계란생산이 늘어(84~5년 : 14.0%, 85~6년 : 18.2%, 86~7년 : 16.7%로 추정됨), 이로 인한 가격의 하락으로 86/7 양년에만 물경 570억 5천만원의 소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86년 : 647천만개×3원(개당 평균순실 추정액)=194억원/87년 : 753천만개×5원=376억 5천만원). 많은 농장들은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도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지만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한 현재의 상황은 타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누가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 죽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모든 동물, 하물며 곤충들조차 자기보호의 천부적인 기능을 갖추고 자기보호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필 양계인들만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에게 협회도 있고 또 몇몇 뜻있는 사람들은 협회와 상관없이 난가의 조절을 위해 자기희생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금년 초에 전국 양계인이 모여 여의도에서 양계인 단합대회도 가졌고, 우리의 권리와 이익의 증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자조금' 즉 안정기금제도를 주장한 바 단결하여 우리의 손으로 자본을 모아 '우리 주도 하에' 필요한 경우 출하를 조절하고 잉여 물량은 가공처리하며, 필요하다면 외국의 수입상품과도 경쟁을 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자존하자는 안이었다. 이를 위한 많은 노력과 함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 빠른 시일내에 안정기금 제도를 마련하자

정창각  
삼주농장 대표



**올**림픽을 위해 온나라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물론 올림픽은 잘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채란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울화가 치밀어 줄것에 맞아야 할 올림픽도 그리 즐겁지 못하다.

필자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황

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소위 '자조금' 즉 '안정기금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주창하여 왔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쳐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황의 근

우리의 의사에 의해 민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등 여러가지 사전적인 그리고 부수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번 유성에서 열렸던 지방대표자대회에서 약 15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우리가 당하기만 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필요한 자금의 염증이 문제처럼 생각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자금의 모집이 가능하면서도 편리한 방법으로 사료에서 원천적으로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징수하자는 것이다. '87년의 경우 산란사료가 총 150여만톤이 판매되었으므로 필요한 자금 15억원을 '쉽게 또 공평하게' 모금할 수 있다. 계란 1개당 20전씩을 부담함으로써 거의 확실한 계란 1개당 5원 이상의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처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 그 의견을 들어보면 첫째, 이미 정부가 관장하는 축산안정기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1) 그 자금은 양계만을 위한 자금이 아니고, 축산전반에 걸친 특히 대가축을 위한(주요한 자금의 출처가 바로 대가축인 소) 정책자금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채란업을 위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필요(액수와 시기)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돈의 사용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정부가 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는 것처럼 농민들의 그렇게 반대하고 국회까지 난리를 쳤던 쇠고기와 양담배가 기어코 수입되었다. 현재

의 상황처럼 농림수산부가 경제기획원 의사에 반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생존권을 보고 서상의 통계숫자로 처리하고 농축산업을 희생시켜서라도 공업을 발전시켜서라도 국부를 증진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한 경제기획원의 책상물림들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맡겨버린다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돈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다.

두번째 반대는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자조금'은 이미 축산안정기금이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이 형성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곤란하다는 주장인데, 자조금 즉 안정기금이 정부가 이미 조성해 놓고 있는 축산안정기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농가자담의 자금조성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정부 법률담당 부서의 견해다.

(2) 자조금의 조성은 실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현실안주적인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기다려왔고 이만큼 손해를 본 것도 아직 부족해서 손발 묶어 놓고 앉아 혹시나 하고 더 기다려 보자는 말인가? 필자가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사료공장쪽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물론 앞서의 제안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행되기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한 조치들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세번째 반대는 안정이 되면 더욱 과잉생산을 피하지 않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1) 시행해 보지도 않고 지나치게 비판적일 필요가 있는

가?이다. 이는 앞의 두번째 반대에 대한 답으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2) 안정이 되면 과잉생산의 피해가 예상되니 구태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현재처럼 불황인데도 사육수수가 줄지 않아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농지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존 등의 각종 법률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농가부업인 경우를 제외한 사육수수의 증가나 농장의 신·증설 등을 규제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으로 인한 무한정의 사육수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위 주장에 대해 구태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현재의 어려움이 차차 나아질 것이므로 역시 자조금과 같은 제도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보통' 농축산인들은 농장의 신·증설이 규제되지만, 재벌기업들은 결코 우리처럼 규제를 심하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모재벌이 '84년도에 20여만수 규모의 양계장을 신설했고, '87년에는 경기도 안성에 10여만수 규모에 대단지를 조성,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또 다른 모재벌은 시범농장이란 이름하에 실제 양계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일본에서도 대기업이 산이나 오지에 대규모의 농장을 건설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독자 판매망을 구축하여 중소농가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지금과 같은 불황 속에서도 호시탐탐 침투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기업들, 이쑤시개, 김치 등에게까지 손을 대는 재벌기업들이 채란업계의

상황이 호전되면 결코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단결하여 우리 주도하에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 나갈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더 이상 늦기 이전에' 자조금 즉 안정기금을 우리의 손으로 한시바빠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다

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 이리저리한 주장이나 반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필자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생존의 싸움에 장애로서 작용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과감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치단결해서 난국을 풀어나가자고 호소한다.

과 마찬가지로이다.

세째, 양계는 자본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축산업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다. 양계에 대한 기술과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물론 적어도 1년 이상의 현장 실습을 통하여 "양계사"라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농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저 아무나 땅과 약간의 시설비만 있으면 양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한국양계는 언제까지 가도 이 수렁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네째, 이제 한국양계는 98% 이상이 전·기업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부업형 양계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큰 기업양계가 그나마도 농민의 소득원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기업양계는 종계농장을 제외하고 전업양계 쪽으로 소득원을 양보할 시기가 온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고용노동으로 양계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걷어 치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용노동비는 노동사분규가 날 때마다 계속 올라서 이제는 가족노동 중심의 양계를 하지 않으면 적어지는 마진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다섯째, 양계산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아쉽다. 양계협회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으나 유통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양계산물의 소비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간의 격차가 다른 돼지고기나 쇠고기에 비하여 너무 크고 아무 곳에서나 손쉽게 살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하루 빨리 고치지 않으면 불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돼지고기가 과거에는 여름철 비수기, 겨울철 성수기라고 하던 것이 왜 근래와서 그런 것이 없어지고 연중 성

# 물량을 자체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설동섭  
축산시험장장

**양**계산업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매번 양계업계가 불황을 겪을 때마다 같은 소리를 하게 되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양계인들 서로가 다 같이 쑥스럽고 곤혹함을 느끼는 바 적지 않다.

첫째, 앞으로 어차피 계란과 계육을 대일 수출하게 될 것이니 미리 계란조합(Egg Board)과 육계조합(Broiler Board)을 창립해서 양계농장을 정리하고 생산물량, 수출입량 등을 자체조절하는 기능을 갖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러한 호·불황의 순환속에서 한국양계가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를 빨리 도입하여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아예 불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하겠다. 이것이 좋은 제도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양계산업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보고 듣고, 배워온 바 있지만 왜 그런지 우리는 지금까지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들어 보지 못했다. 좋은 제도가 비록 우리에게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 원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게임

수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양계 인들은 다시 음미해 봄직하다. 이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 매번 힘

들여 이야기해도 실천되는 것이 없으므로 잔소리만 되기 쉬워 이만 줄이겠다.

한 성실업자만이 피해를 보는 그야말로 동업자간에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으로 사육업자는 말한다. 부화업자(PS)가 병아리를 많이 생산해서 불황을 만든다고, 그러나 부화업자는 말한다. 원종농장(GPS)에서 PS를 많이 생산하니 어쩔 방법이 있느냐고! 그렇다. 문제는 근본에서 차단해야 된다. 최근 원종농장 5개업체에서는 모임을 갖고 근본적원인이 PS과잉생산에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소비시장에 적정수수를 맞추자면 GPS가 45% 정도 감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업계 스스로가 인정하였고 술선수법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도 가까스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숫자이나, 적정숫자의 거의 배에 가까운 원종계가 현재 사육되고 있다니! 지금까지의 극심한 불황과 각성론이 없다면 또한 이러한 모임에서 논의가 없었다면 우리 업계는 정말 만성적인 불황 속에 사람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민속에서도 하급의 인간취급을 받을 뻔한 일이다. 구호와 말로만 그치는 종전과 같은 모임이나 약속이 되지 말고 부디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서로가 같이 손잡고 상부상조하는 술선수법을 반드시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

# 한탕심리 버리고 단결해야

유길동

서산군 육계안정협의회 회장



**브**로일러 산업이 국내에 정착한 이후 사상 유래없는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지지 못하던 육계시장, 혼란과 무질서 속에 통계자료와 경기전망조차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수선한 작금의 업계 현황이다.

정론과 반론이 며칠을 유지하지 못하고 뒤바뀌는 속에 금년 여름의 육계시장은 정말로 전례없는 근 1년 여만에 긴 불황 속에서 벗어나 기쁨과 시달림에 시들고 지쳐있던 업계에 새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이 활력소격인 호경기도 실은 전혀 예측치 못한, 권위있으신 업계의 인사분들은 본전 뽑기도 어려워라하는 것이 금년 북경기의 전망이었다. 작금의 무수한 불호황의 경기변화를 체험해 보며 나름대로 압축시켜 업계의 모순점을 평론해 보기로 한다.

## 1. 부화장

사육자와는 땀해야 땀 수 없는 공존공생의 관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화업계는 사육업자보다

는 한단계위에 지도급의 차원에서 브로일러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었고 또한 신뢰와 기업의 윤리적 차원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었다. 세상 매사가 혼하면 천해지기 마련이라서 그런가? 불신과 기만 속에 최근의 부화업계는 한마디로 사육업자와의 사이에 어떤 적대감 같은 감정까지도 느껴보는 묘한 관계가 되었다. 한쪽이 없으면 피차간에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병아리!

바로 이것만 숫자가 적어지면 만사는 모두 해결된다. 국민학교 산수보다 더 간단한 이등식이 이렇듯 어렵고 방법이 없단 말인가? 비운 뒤에는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과 같이 얼마 전부터 부화업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자는 자성론이 일어 독자적인 협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논의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매번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었으며, 착실히 약속을 이행

## 2. 사육업자

최근의 육계업자는 많이 성숙해졌다. 그 원인은 속담과 같이 비운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이론에서 일까?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육계업 그때에는 아무래도 통계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가 그 댓가를 받았고 주위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통계와 예측이 잘 맞았다는 이야기이다. 불황이



장기적으로 엄습해 온 뒤로의 최근의 육계업자 통계자료의 관계, 이것을 한마디로 개판에서나 하는 등 식밖에 성립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경기가 좋을 것 같다면 나쁘고 나쁠 것 같다면 좋고 이 계산방법에는 정론과 반론을 역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또 역으로 더하고, 이러다보니 어떤 것이 정론이고 어떤 것이 반론인지 아리송한 판단속에 혼미해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멀쩡하고 똑똑하던 사람들도 마음과 판단이 흐려지고 비뚤어지게 마련, “현사회에서 인생은 노름이다”라는 식으로 무리한 입추를 한다. 어차피 돈벌어 빚갚기도 막연한 현실정, 출하시 닭값이 얼마나 됐든간에 팔아서 우선 마구쓰고 수들리면 나자빠지거나 삼십육계 뛰자는 이야기다. 이보다 좀 나은 동료는 병아리값만 싸면 입추를 한다. 백원 미만이면 닭값이 내려봐도 별로 밀리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꼭 줄어야할 병아리가 마켓팅의 기본원리에 의해 수요가 있는 곳에 생산과 공급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병아리의 과잉생산이 확실시되면 공짜로도 받지 말아야 된다. 남이 안받을 때 내가 받아서 혼자서 짹짹이 재미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은 구시대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매우 유치한 계산이며 또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최근의 국내에서는 어떤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동업자간에 자발적인 모임으로 협회나 단체가 속출하고 또한 단결됨으로써 이상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육계시장은 최근들어 매우 신경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닭값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루사이에 50

~100원씩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유통업소도 관련이 있지만 이번엔 사육업자 측면에서 순수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무엇때문에 하룻새에 1년치 생활비가 왔다갔다 할 정도의 도깨비 시장이냐고.

그것은 간단하다. 지금까지의 그 많은 불황을 체험하면서 일년에 불과 서너번 밖에 못하는 이 사업에 한번만 호된 적자를 보게 되면 남은 사업 잘 해 봐도 깊은 웅덩이를 메꾸고 보면 별볼 일이 없는 법, 그렇기에 모처럼만의 출하시에는 마음과 머리털까지도 모두가 끈두설 정도의 초긴장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 3. 결론

육계사업도 간단히 구분하면 관리와 경영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관리는 질병이 없는 속에 사료를 적게 먹고 빨리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올인-올아웃 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리인 것이다.

경영면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올아웃시에 야기되는 홍수출하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이고 연간 3회 안팎의 출하시에 초긴장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닭값이 또한 잘 맞출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여기에는 좀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사업의 운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1년에 몇차례씩 잘 안맞을 때는 점을 보러 다니

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대로 자가용도 타고 다니며 살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육계사업은 관리에 치중될 수도 없고 경영에 치중될 수도 없는 절충식이어야겠다. 이 절충식 사육에서 우리 사육자가 마음놓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적정생산비 이상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속에 연속사육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계사의 일정한 휴식기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GPS 농장에서 약속대로 정말 적정수수만 생산하여 공급한다면 부화업계도 항상 적정이윤을 포함한 안정적인 병아리를 사육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육계시장은 1년 내내 계절에도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받는 업계로 변화될 것이며 여기에는 무리한 입추와 한탕주의의 도박심리도 사라질 것이고 연속적인 출하이기에 출하시의 무리한 신경전도 없을 것이며 닭값 등락의 진폭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상 열거한 몇가지의 문제점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단결이다. 모래같은 개체적으로 강인한 국민성에 보다 더 단단히 그리고 크게 뭉쳐질 수 있는 콘크리트. 우리 모두 이 거대한 콘크리트덩이로 일치 단결하여 뭉쳐질 수만 있다면 미래의 우리 육계업은 탄탄대로의 밝은 전망 속에서 무궁한 발전이 될 것이다.

**나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전체를 망친다**



## 김상희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우**리 양계업계가 지금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소나기 퍼붓듯이 해결책이 쏟아질리 만무하고 우리 양계산업의 승패가 외국의 농작물 작황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불행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양계업계 내부의 인식과 구조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을 잃은 것도 사실이다. 상향곡선에선 신바람나게 올라가다가 하향곡선에선 급전직하, 흡사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왕래하는 느낌이지만 지금은 그나마 밑바닥에서 맴돌 때가 더욱 많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나 강력한 실천의지를 전제로 한다. 이미 부화업계에선 자구책을 위해 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장기적으로는 사료수입국을 다변

화하여 일부 국가의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사료곡물의 관세부과에 대한 모순점을 해결하며, 자조금제도를 확립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면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보다 절실한 것은 유통구조의 개선과 수급조절량의 통제가 가능한 강력한 조정기능을 가진 양계인 단체가 있어야 하겠다. 맹목적인 증산, 결치레탄의 확장이 끼친 악영향과 국내 양계업계의 99%가 기업양계인 점에 비추어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산물의 수출활성화를 통해 양계업계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계산물의 위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계산물의 엄정한 위생처리 기준을 설정하여 계산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비위생적으로 난립한 양계장의 일차 정지(整地)단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무차별 수입압력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계육, 계란의 품질등급제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산물의 집중적인 소비홍보대책도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통하여 의료비용을 절약하고, 무산계의 색출도태, 사료의 유실방지, 양질의 사료선택 등의 원가절감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매일수룩 보다 양질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불황의 악순환만 계속된다면 닭고기나 계란도 수입개방병에 언제 노출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을 계기로 양계업계는 어떤 형태로든 1차 정리가 되어야 하며, 생산과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양계인 전체를 위해 자제할 수준에 이미 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군생산업자끼리 모여 허심탄회하게 양계의 앞날을 걱정할 때이다.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양계인 모두가 피부로 절감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양계지**

## ※양계인들이 단합해야 하는 이유

양계산업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생산자들이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 사료가격 인상으로 생산비 증가
- 과잉생산으로 인한 원가 이하 출하
- 유통구조 미비로 큰 가격진폭이 소비위축인데

이것은 양계인들이 단합해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